

# 기본생활 보장 포용적 복지 모형 창출 모색

■ 제20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 제1회 생겨진천 복지박람회 성료

사회복지 도민 이해증진 · 관련 종사자 격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유공자 50명 포상 수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와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창) 공동 주관으로, '제20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 제1회 생겨진천 복지박람회'가 12일 진천 화랑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사람중심의 미래도시 생겨진천!'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창섭 행정부지사,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 송기섭 진천군수,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유관기관 단체장 및 종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가아금 병창 공연을 시작으로 이규창 회장의 개회선언,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사회복지비전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충청북도지사 표창, 충청북도의회 의장 표창, 진천군수 표창,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로상,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진천군사회복지대상 등 총 50명의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이 진행되었다.

특히 진천군사회복지대상은 올해 처음 진행되었고 다문화가정정보나기 행사까지 함께 진행되어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부대행사로 사회복지 정보제공 및 캠페인, 음식나누기, 체험부스 등의 사회복지유관기관 홍보부스 운영, 토크 콘서트, 장기자랑, 프리마켓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김영석 회장은 "사회복지의 날은 국내 사회복지사업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충북 고유의 복지모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창 회장은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제1회 생겨진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각각 군민에게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을, 종사자들에게는 사기 진작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 · 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눔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제정됐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와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창) 공동 주관으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및 제1회 생겨진천복지박람회'가 12일 진천 화랑관 일대에서 개최됐다.

## 제20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 제1회 생겨진천 복지박람회 유공자 표창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9인) : 이상민(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 이애선(상록수), 이홍식(증평노인전문요양원), 조재훈(라우렌시오빌), 하대석(음성군장애인복지관), 홍상근(도담제약 주식회사), 정주경(노인복지관(사)충청노인복지개발회), 김미연(충청북도 옥천군), 조은숙(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지사 표창(18인) : 계형원(증평노인전문요양원), 김선이(진천군노인복지관), 김재훈(보은군사회복지협

의회), 이경희(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보문(충주시노인복지관), 이영복(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 이지원(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임승호(충북 음성지역자활센터), 정항목(영생원), 조미주(청주우암시니어클럽), 한덕자(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 단양노인복지관, 고정웅(진천군 백곡면행정복지센터), 김미애(영동군 주민복지과), 나경희(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이경미(제천시 사회복지과), 임승규(충

주시 노인장애인과), 홍진영(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

▷충청북도의회 의장 표창(11인) : 권순남(단양지역자활센터), 김선화(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남경민(진천군수어통역센터), 박수경(옥천지역자활센터), 오복희(평화와선재가장기요양기관), 이상민(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이영애(음성군장애인복지관), 임창권(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정영임(보은군노인장애인지관), 조미정(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탁수진(삼보사회복지관)

▷진천군수 표창(3인) : 임주연(진천군노인복지관), 장은경(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홍정연(광혜원지역아동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공로상(1인) : 유재순(청주청소년상담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6인) : 김완섭(옥천시니어클럽), 김재엽(사석노인요양원), 박지영(증평군장애인복지관), 박준숙(사랑의교실 지역아동센터), 이석민(소망노인요양원), 이연화(꽃동네천사의집)

▷진천군사회복지대상(2인) : 생겨진천 카네이션클럽, 이흥우(주) 유영제약

## 충북도교육청 "복지교육 법제화 조례 제정해야"

충북복지교육 연구회 결과보고회... 지역 258개 초등학교 현황 분석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에서 복지교육을 담당하는 '복지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한 사회복지교육을 법제화할 수 있는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 최초 '사회복지교육 조례' 제정으로 창의인성 체험활동시간에 사회복지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충북 복지교육 연구회(대표 이숙애 의원)'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충북지역 초등학교 복지교육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

한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258개 초등학교 복지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지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연간 법정교육과 복지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교육 내용으로는 각 법령별로 파편화돼있는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 교육, 다문화교육, 자원봉사, 성폭력, 성매매교육, 자살예방교육, 가정폭력 등의 내용을 '사회복지' 범주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이숙애 의원 진행으로 연구결과 보고, 질의응답 순으

로 공동연구위원으로 참여한 박문희·박성원·육미선·윤남진·이상식·이수완·이의영·최경천·하유정·허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이화정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은 연구결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복지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으로 사회복지교육 법제화 조례 제정,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지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복지교육협의체' 구성, 초·중·고등학교에 맞는 학년별 복지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숙애 의원은 "학생들의 행복 복지 교육을 위해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충북 청년 정책토론회 "지역 현안 논의해요"



충북지역 대학생, 직장인 등 70여명의 청년들이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충북 정책토론회에서 열린 토론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충북 청년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지역 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 정책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과 이상욱

의원을 비롯해 대학생, 직장인 등 7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와 복지, 놀이 및 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열린 토론을 했다.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청년 일자리 대안과 복지 대책이 제시됐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업 지원보다 청년 유류에 맞춘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중소기업 및 계약직 청년노동자들의 근무환경(복지, 인건비 등) 개선 지원, 취 · 창업 정보 획득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공간 조성 등이 우선순위로 제시됐다.

청년 복지 분야는 청년수당(교통비, 의료비, 학습비, 문화비 등) 지원,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내 인식개선 등을 꼽았으며, 청년 놀이 ·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이 기획 · 주도하는 지역 문화사업 추진,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청년 문화 활동 공간 조성 등을 내놓았다.

# 2019년 충청북도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개최 안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2019 충청북도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9. 12. 6.(금) 14:00
- 장 소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 대 상 자원봉사자 및 인증관리요원 150여명
- 프로그램 식전공연, 자원봉사자의 날 유공자 표창, 우수 인증관리센터 현판 증정
- 참가신청 안내

○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 양식 작성 후 협의회 팩스(F. 043-234-0849)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

※ 참가신청서 양식은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문 의 : ☎ 043) 234-0840(김솔지 사회복지사)



# 진천군, 통합돌봄 사업 추진 '박차'

### 읍·면 행복센터·보건소 등 12개소에 안내창구 개설 진천읍 등 3개소 전문인력 우선 배치... 내년부터 점차 확대

진천군이 지난 7일 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에 이어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10월 30일 읍·면 행복정보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시설 등 12개소에 안내창구를 개설하고 사업 홍보 및 추진에 돌입했다.

다음 달부터는 인구 분포 비율이 높은 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사회복지, 간호 전문인력 6명을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지역에 확대 배치해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은 어르신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 생활 등을 통합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진천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통합돌봄 안내창구'는 이동 지원, 가사 간병, 주거환경 개선, 영양 도시락 지원, 케어안심주택 지원, 스마트 안심생활 지원, 방문 보건, 치매예방서비스 등 25개의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며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어르신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이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읍면별로 지정된 18곳의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병원 퇴원환자나 장기요양 등급의자들로 점차 확대 나갈 계획이다.

# "위기가구 발굴·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총력"

### 청주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복지증진 '맞손'



청주시가 청주시주거복지센터와 '희망 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가 10월 28일 생명나눔 52, 청주시주거복지센터와 '희망 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향섭 부시장, 생명나눔 52 오혜숙 대표, 한정현 청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실시하기로 약정했다.

특히 생명나눔52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기로 했으며, 시는 이에 따른 행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생명나눔 52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해 내달 중 독거노인, 장애인, 불우 청소년 등 20여 가구의 노후 보일러를 교체·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생명나눔 52는 유니웰(주)에서 사회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단체로 2017년부터 지역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정기후원, 김장담그기, 반찬 배달 등 지역 내 다양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 청주가족센터 모충동에 들어선다

###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2021년 하반기 준공 계획

청주시는 가족복지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청주시 가족센터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지상 4층, 건축전체 면적 4079㎡ 규모의 노유자시설이다. 이곳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새생명지원센터 등 가족복지통합 공간으로 구성된다.

청주시가족센터는 서원구 모충동 94-9 청주시아동복지관 터에 건립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께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당선작은 청주시가족센터의 기본적인 형태와 공간 활용을 제시했다"며 "실시설계 때 관계전문가와 시설 이용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족복지 통합센터로서의 거점 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천시 120여개 복지사업 '한눈에'

### 안내서 '행복지키미' 발간... 보건소·행복센터서 배부

제천시는 출산축하금, 다자녀 가정 교육비, 대학생 전업지원금, 장수 수당 등 아이부터 노인까지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담은 안내서 '행복지키미'를 최근 발간했다. 시는 제천시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육아·보육, 청소년·대학생·청년, 노인·장애인 등 제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8개 분야 120여개의 사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책자에는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대상별로 나눠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문의처 등을 수록하고 지난해 발간본에 비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 겸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 "청년이 행복한 충주 조성에 힘 모을 것"

###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정책시행·현황 등 토의

충주시가 지역사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5일 시청 중앙합의실에서 열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부터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읍면별로 지정된 18곳의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병원 퇴원환자나 장기요양 등급의자들로 점차 확대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임택수 부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조준근 행정복지위원장,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 청년단체 대표 및 각 분야 청년과 관련자 등 20명이 참여해 청년 정책시행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회의 안건으로는 2019 청년시책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설명, 지난 회의 시 청년시책관련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신규 발굴 추진 사업 소개 등이 진행됐다. 시는 청년과 관련한 40여 가지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청년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충주시 청년채용

지원사업, 청년세대 평생학습 강사양성, 청년 면접장장 무료대여 사업 등 금년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 사업인 청년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택수 부시장은 "시는 지역사회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이 원하는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양군 '2019 국민드림마차 지원사업' 선정

###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 제공

단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2019 국민드림마차 지원사업'에 선정돼 차량 1대를 지원받는다. 6일 단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발전 등 소외계층 차량 지원을 위한 2019 국민드림마차 지원사업에 선정돼 차량 1대를 지원받는다.

차량 지원을 통해 단양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단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차량 1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 6월 신청서를 제출해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사업에 선정됐다.

이동지원센터는 기존 1대의 차량과 지원 받은 1대를 합쳐 향후 2대의 차량으로 장애인들의 신속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단양군장애인생활이동



단양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한국마사회의 2019 국민드림마차 지원 사업에 선정돼 차량 1대를 전달 받고 있다.

지원센터는 장애인 복지이용 시설로 차량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 2006년 8월 개소해 매년 350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차량 지원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이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음성군보건소 "약 달력으로 사고예방"

### 전망중·치매 노인 약 복용 관리 '효과적'... 오·남용 방지

음성군보건소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올바른 약물복용의 지침이 될 '약달력'을 제작·배포해 관심을 모은다.

'약 달력'은 평소 건망증, 치매 등으로 약 복용을 거르거나 중복해서 복용하는 사례가 많은 가족 돌봄 취약 만성질환자와 치매를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포 중이다.

특히 70세 이상 취약계층과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방문해 약 달력 사용법과 투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약 달력'은 한 달 치 분량의 약을 일차별로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약 복용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홀몸 어르신이나 건망증 있는 사람들이 약 복용을 잊거나 중복해 복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혈압과 당뇨 환자의 경우 하루라도 약을 거르면 자칫 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 복용을 깜박 잊거나 중복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3일 "보건기관 전문 인력이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약 달력' 사용법과 울



바른 투약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이 건강함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효과가 확인되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앤푸드, CJ산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개롱센터, CJ수원반포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 자운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우동(중평점), 송림푸드, 청주우동, 예버리치, CJ산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과(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썸플레이스, 첨맛식품, 리온알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초기초청주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주어탕, 좋은아침, (주)계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두유사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 청주시라니푸드뱅크 참조은우동, 델리스(분평동), 백설우동, 홀몰러
-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바우어,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통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츠굿해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정도너츠, 바로꾸은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명명물,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솔푸드, 푸드클로리, 한솔, 비전영점, 뉴타운점, 올랑칸타빌점, 올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동, 우암사문우동,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협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식식품, 두레주르 율랑점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쌍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산업단지점, 기문출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홀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칠떡국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두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장지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금관역점,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배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산편백,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암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암떡집, 영농조합법인 희여울, 홀프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후생사), (주)월드이십일 에이치규, 자연연결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과 가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름, 서울우유지스, 시아스우동, 두레주르 분평점, 목행점과,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대(주), 무외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숲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중평점, 델리천 증평점, 그린우동, GS25 증평대로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노도, 신선촌, 운산식품, 세종우유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배오 베이커리, 두레주르괴산점, 파리바게뜨괴산점, 매키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식회사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강, 조마루 갑지랑,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청담로터리클럽, (주)한일우유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옥), (주)벤엘유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해물류,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두대찌개, 단킨도너츠(김양), (주)이가지자연원, (주)후드원, 김점철머시미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 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기초푸드뱅크 파르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도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기향만두편백, 김수향, 델리퀸(이월점), 에스앤푸드, 자해식품, 명가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가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 고인돌식품, 대하우동, 델리천중추교현점, 떡보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동, 삼일상회, 서울우유지스충주대리점, 유원우동,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 베이커리(충주점), 한이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우업, 두리메리계,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우동,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라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프리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SN푸드, 음성CJ, 음성(주)주인,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두송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파리바게뜨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썬데이푸드, 대상청정원

# 빛나는 민·관 협업... 옥천군 주거복지 '눈길'

### 재난위기가정 기프트하우스사업 입주식 열려

### 주거취약계층에 주택 제공... 이복구씨 부부 선정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 한 가정에 대한 '재난위기 가정 기프트하우스 시즌5 사업'의 입주식은 민·관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11일 열린 행사는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열쇠 증정, 내부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으며, 사업대상자인 이복구(78) 부부가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 들어가까지 많은 도움을 준 12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5년 첫 선을 보인 후 올해로 5회째인 이 사업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주거취약 계층에 완성형 주택과 창고를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주택

설치에 수반되는 필수 행·재정적 지원을 책임지는 민간과 관공의 합동 프로젝트 사업이다.

군은 지난 4월 수해가구를 발굴해 지원을 신청한 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경남 의령, 경북 청송 등 2개 군과 함께 7월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군은 기존 노후 주택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부터 좁은 진입로 확장 및 기초설계, 기초공사, 각종 기반시설 설치, 가전제품 지원과 입주 청소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관내 민관협력에 주력했다.

평소 지역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던 여러 기관단체에서 재능기



'재난위기 가정 기프트하우스 시즌5' 사업으로 입주하게 된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 이복구씨 부부가 관계자들이 증정한 열쇠를 받고 있다.

부로 응답해왔다. 이렇듯 군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토지측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대상가구가 선정된 이복구 씨와 배우자 정향기(80) 씨는 오순도순 정답게 생활하고 있지만, 여든 해 목은 오래된 흉상 목조 주택인 탓에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후한기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주거 안정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재해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이번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으로 기증된 주택은 국내 기술로 내진설계와 방염처리가 이루어져 지진이나 화재에도 잘 견딜 수 있게 했다.

김재중 군수는 "오랜 기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신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해준 민간단체에 감사한다"며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군 차원의 지원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7일 괴산군이 이차영군수와 노영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ilter·착한가게·착한가정' 현판 전달식을 개최하고 있다.

## 괴산군 '착한ilter·착한가게·착한가정' 현판 전달식

### 괴산사랑 희망나눔 운동 일환... 후원금 저소득 가구에 지원

괴산군은 7일 '착한ilter·착한가게·착한가정'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1월부터 펼쳐지고 있는 '괴산사랑 희망나눔 운동'의 하나로 열렸다.

괴산군정 600여 명의 공직자들은 매달 급여로 우수리 모금을 통해 '괴산사랑 희망 나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군내 18개 사업장도 착한가게로 등록하고 월 3만 원 이상을 후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주)미미식품, 두웰타워, (주)햇빛사랑 등이다.

이 밖에도 지역 내 38가구가 착한가정에 가입해 어려운 이웃에 월 2만 원 이상 지원하며 따뜻

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에 동참해 준 착한가게와 착한가정 가입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판 전달식을 계기로 괴산사랑 희망나눔 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사랑 희망 나눔 운동'을 통해 모은 후원금은 군내 저소득 가구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으로 쓰인다.

## 옥천군, 기관 협업 통한 '복지타운' 설치 추진

### 군내 기관 모아 복지허브 구축... 내년 7월부터 입주

옥천군은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기관을 한데 모아 육아, 아동, 다문화, 노인 등 기관의 상호 협업을 통한 복지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타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군내 21개의 복지 기관이 사무실 등을 임대 사용하면서 사업장의 분산으로 국가보조사업의 시너지효과가 반감되고 임대기간 만료 및 임대료 전 계약해지 등이 발생해 복지타운 설

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노인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분야 국정과제 등 다양한 복지요구에 따라 사업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옥천읍 삼금로 4길 5에 위치한 지상 7층 건물(연면적 4천182.98㎡, 토지면적 2천311㎡)을 매입해 복지타운을 설치하고 임대사용 기관중에 사업 확장성이 높은 9개 복지기관

을 입주시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으로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에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서 등 다양한 장소를 두고 수요면적, 행정절차에 따른 사용가능시기, 매입 및 건축비용을 고려한 결과 가운데 매입해 복지타운을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9월 복지타운 설치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설문조사에서는 계획부지에 복지타운 설치가

찬성이 89%였으며, 이용자 및 미 이용자를 포함하여 11월에 추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복지타운 필요성에 83% 찬성, 그중 현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전체 응답자 기준 58%로 나타났다.

옥천군은 가운데 매입이 되면, 간막이 설치 등의 기능보강을 거쳐 빠르게 내년 7월부터 복지타운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옥천군 주민복지과장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주민참여 원탁토론회 개최

### 총 100명 참여... 놀이와 여가·참여와 시민의식 등 논의

증평군은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증평군'이라는 주제로 주민참여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표준지침에 따른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함이다.

토론회에는 초·중·고등학교

생 70명과 학부모 20명, 아동관계자 10명 등 총 100명이 참여해 퍼실리테이터가 제시하는 6개 분야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주제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이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이날 모인 작은 의견이 훗날 우리 아이

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증평군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2020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난 3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동친화도시(실태)조사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 관련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이행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보은지역 복지단체 기금확보 '희색'

### 보은대추축제서 얻은 수익금 복지사업에 사용

지난 10월 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19 보은대추축제에 참가한 복지단체마다 운영자금을 넉넉히 확보하게 되면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보은대추 축제기간에 보은군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5개 단체는 축제장 한편에 부스를 열어 축제장을 방문한 관

객에게 대추 떡, 빵, 음료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다가오는 연말부터 지역에 환원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9 보은대추축제가 91만 4300여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대 성공함에 따라 매출액도 지난해 대비 22% 상승한 8000여만원에 달해 재료비를 뺀 모든 수익금을 단체의 운영비와 복지사업에 쓸 예정이다.

축제에 참가한 박미선 노인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관내에 설치한 '본빵'이 대추축제기간 복지관을 벗어나 축제장에서 빵을 판매해 참여한 장애인들이 섣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컸다"며 "여기에 매출액도 지난해 대비 44% 증가해 놀랍고 수입금은 전액 장애인 직업훈련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19 영동군 취업박람회, 구직자·고용자 모두 '호응'

영동군은 7일 개최한 '2019 영동군 취업박람회'가 구직자와 고용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행사장에 예상보

다 많은 구직자가 참여하여 구인기업과 현장면접이 이루어지고, 알찬 취업정보를 교류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이날 취업박람회가 열린 U1대

학교 종합체육관에는 400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해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채웠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는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과 지역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U1대학교 학생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많았다.

취업박람회장에는 현장면접 이외에도 이력서 사진촬영, 취업타로, 지문인·작성검사, 면접메이크업 등 취업관련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취업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 증평군 외국인 주민지원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증평군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증평군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위촉식 및 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3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외국인의 목소리를 대변토록 했다. 임기는 2년으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

한편, 증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올 6월 말 기준 724명으로, 전체 인구(3만7540명) 대비 1.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50억 원을 들여 노후화된 증평군가족센터를 증평읍 내성



증평군이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리 보건복지타운으로 2021년까지 확장·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센터는 연면적 1600㎡로 다문화소통교류공간과 돌봄센터, 교육실 등이 들어선다.

돌봄서비스, 한국어 교육, 외국인 국적취득 지원 등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8월부터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의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

를 돕기 위해 외국인 통역 콜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밖에도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한마음축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생활 가이드 북 활용 안내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편의 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외국인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 고교무상교육 2021년까지 전학년 확대

### 교육 관련 12개 법안 통과... 올해 고3부터 무상교육 일반 사립고도 지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폐지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이후에도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2학기 3학년이 이어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적용을 받는다.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12개 법안이 통과했다.

개정 초·중·고등교육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 학교와 지원 항목, 연도별 시행 방

안 등을 명시했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립 고교는 물론이고 일반 사립고교도 지원 대상이다.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공립 외고와 특성화고는 무상교육 대상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사립외국어고, 예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에는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 방법이 담겼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는 국가가 증액교부금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늘리는 형태로 부담하기로 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부담하던 대로 총 소요액의 5%를 부담한다. 나머지 47.5%는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협의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특회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장려를 연장했다.

대학 입학금은 이날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앞으로 대학 등록금을 연 2회 이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위원은 현재 '7~9명'에서 '9~12명'으로 늘어난다. 교원 소청심사 건수가 2013년 487건에서 지난해 776건으로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교원 출신 위원은 전체 소청위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소청위원 자격에 법률학 교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립 특수학교 교장의 중임 제한 횟수를 다른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1회로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 고용률 23년 만에 최고 기록

### 취업자 수 3개월간 30여만명 ↑ ... 실업률 6년 만에 최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이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다. 고용률은 10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이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8월 45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9월 34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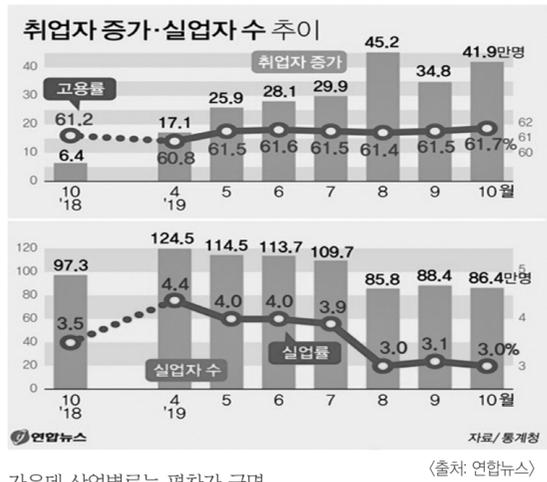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10월 기준으로 1996년(62.1%) 이후 23년 만에 최고다. 고용률은 올해 들어 1월(-0.3%포인트)과 4월(-0.1%포인트)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4.3%로 1.4%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1년 새 0.5%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다. 10월 기준으로 2013년(2.7%) 이후 최저다. 청년 실업률은 7.2%로 1.2%포인트 떨어졌다. 2012년 10월 6.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제삼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0.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내렸다. 전반적인 고용 지표는 개선된



가운데 산업별로는 편차가 극명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2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9만6000명)에서는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8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5만4000명) 등에서는 줄어들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 청년구직지원금에 알바 줄고 구직활동 늘어

### 월 50만원 6개월간 지급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구직활동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1기 수급자 9천417명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16.9%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천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고 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미취업자만 지원 대상이지만, 노동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3기 수급자 3만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급 직전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의 비율은 25.3%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전후 조사 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원금 수급 이후 아르바이트생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도 지원금 수급 이전에는 평

균 2.95일이었으나 수급 이후에는 2.73일로 줄었고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도 수급 이전 5.69시간에서 수급 이후 5.33시간으로 감소했다.

하루에 취업 준비를 포함한 구직 관련 활동을 한 시간은 지원금 수급 이전에는 평균 6.33시간이었으나 수급 이후에는 7.42시간으로 증가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입사 지원, 면접 응시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한 횟수도 수급 이전 3.13회에서 수급 이후 3.44회로 늘었다.

## 노인 기준연령 상향, 일괄 아닌 '정책별로'

(65~70세)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TF 노인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발표

### 일괄조정은 당장 시행 어려워... 장기과제로 전환 각 복지 사업 특성 맞춰 개별조정·지출관리 계획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노인복지 정책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인 연령 70세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일괄 조정 대신 정책별 조정으로 지출 관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등 노인소득보장 정책은 대상 연령 상향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의료보장·노인돌봄은 연령보다는 필요도에 초점을 맞춰 지원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노인 연령 변경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정책 TF는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방안을 이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발표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의 재정역제 등 우리나라 주요 복

지제도는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TF는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노인 관련 복지사업의 연령 기준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노인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사회 경험과 소득수준도 높아져서 고령인구 비율은 노인복지정책이 올라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단기간 논의해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노인 기준연령 변경은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면 204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가 400만명 이상 늘어나면서 고령인구 비율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다만, 기준이 변경되면 노인빈곤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년 연장과 더불어 은퇴자 재취업·창업지원 강화, 고령자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 평생교육 등 재교육 기회 확대

등 고용대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중고령자 노후준비 지원 확대 등 소득보장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복지부는 먼저 단기 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옛날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할머니사업' 참가자의 활동비(3만5천원~4만원)를 올리고, 연령 기준(56~70세→56~80세) 상향선도 높인다. 재능나눔 노인일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하향 조정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수요, 고용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공급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연령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생활지원 정책에서는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령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결정된 방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때때로 장기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 등 의료보장 정책에서는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해 연령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은 현재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적용 연령 상향에 신중하기로 했다.

## 국·공립 복지시설, 비영리 법인 위탁 시 공모 예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예외로 규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은 위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기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해 공개모집 예외사유(신규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기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해 공개모집 예외사유(신규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었다.)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자원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문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 4.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중복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심한 스트레스 질환 시달리는 사회복지 종사자

## 청주복지재단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 시설종사자 중 62.4%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 있어

청주지역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들이 불면 등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복지재단은 지난 10월 31일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권실태는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학교, 의료기관 포함) 370명과 시청 담당 공무원 105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62.4%는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질병 유형으로는 57.8%가 스

트레스 질환(우울증, 불면, 불안 등)을 꼽았고 32%는 근육질환, 29.8%는 위장 질환을 경험했다고 했다.

수면양상에 대해 전체 33.5%가 '늘 수면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16.3%는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다', 6.0%는 '잠들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 4점 이상의 우울감(0~12점 중 4점 이상은 상담이 요구되는 우울)을 호소한 응답자 28.1% 중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해 '자살충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종사는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또는 상담

고객으로부터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각각 13.2%, 24%로 집계됐다.

직장 내 폭력 유형은 정신적 괴롭힘이 9.8%로 가장 많았고, 언어적 폭력 7.7%, 신체적 폭력과 성적 괴롭힘은 각각 0.8%로 조사됐다. 이들 종사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4점 만점 중 평균 2.9점으로 나왔다. 평균 만족도보다 낮은 항목은 임금수준(2.5점), 복리후생(2.7점), 노동강도(2.7점), 인사·승진·노무관리(2.8점)로 꼽혔다.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전체 40.9% 집계됐고, 이 중 77.6%는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 분야로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직 또는 이직을 고민하는 1순위는 '임금', 2순위는 '장래성'으로

응답했다. 청주시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47.6%는 근로환경 등의 이유로 사직·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50%는 실제로 사직 또는 이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맡은 홍재은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종사자 인권 모니터링, 인권침해 사례 기초자료 구축 및 표준 양식 배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춤형 복지와 통합사례 관리 비중이 확대되고 민원인과 직접서비스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직무교육, 근로환경의 체계적 재점검, 재중전 기회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 노인학대 ZERO·존엄케어 실천 결의대회

## 충북미래여성플라자서

### 노인학대 금지 서약서 서명까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인학대 ZERO와 존엄케어 실천 결의대회가 1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4개 협회(충북노인복지협회·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충북지부)가 공동주관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관련 종사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학대 ZERO와 존엄케어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최근 인권에



충북 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지난 1일 '노인학대 ZERO와 존엄케어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충북 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지킴이임을 자각하게 하는데 있으며,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의

실천의지를 다지는데 있다. 또 존엄케어실천을 위한 약서와 노인학대 금지에 대한 서약서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노인 학대 예방 및 존엄케어에 대한 책임과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충북발달센터-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업무협약

## 발달장애인 복지증진·권리보장 등 상호 협력 약속 지역 발달장애인 등에 필요한 맞춤형서비스 연계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충북발달센터)는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과 10월 28일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형완 충북발달센터장, 오재훈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등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 공공후견 대상자 연계,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학대, 차별, 인권침해 발생 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등 지원 및 협조, 발달장애인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공동지원체계 등 지역사회 서비스 관련 사업 협력,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개발,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한다.

김형완 충북발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지역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 안에서 모든 주민이 발달장애인도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피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호조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충북지역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 공공후견, 권리구제 상담 및 지원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0~9)로 하면 된다.

# "영유아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 청주시 영유아통합지원사업 10주년 성과보고회 성료

시소와그네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는 19일 상당구청 대공연장에서 '영유아통합지원사업 10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위원장,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유응모 회장 등 복지관련 인사들과 영유아 부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10주년 성과보고회는 영유아 가족과 지역유관기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년간 진행된 사업의 변화된 성과를 지역에 알리고, "영유아가 행복한 육아토록"을 진행했다.

육아토록에서는 영유아통합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나누고, 회원들의 합창공연으로 따뜻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시소와그네를 통해 변화·성장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유옥현 센터장은 2009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영유아복지프로그램 180여종, 가족지원프로그램 375여종, 120여개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펼쳤으며, 조기개입의 필요성과 영유아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또 청주시영유아통합지원사업



10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지역유관기관 실무자 및 영유아 가족들이 하트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에 공헌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위원, 청주어나바 다협동조합 윤송현 이사장, 오늘이민호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김은숙 위원장은 "이런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이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며 진행된 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며, 앞으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옥현 센터장은 "서비스에 참여했던 영유아와 그 가족들은 물론, 청주시 지역사회도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사업 MOU

## 대한노인회진천군백곡면분회·충북노인종합복지관과 협약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일 (사)대한노인회진천군백곡면분회와 충청북도노인종합사회복지관 연합모금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모금'은 사회복지

지기관이 모금회와 함께 공동모금을 실시해 기관의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기관은 연합모금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백곡면분회는 백곡면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목표금액 6천만원과 충북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 및 교육실 환경개선을 위해 목표금액 2천만원을 금년 12월 말까지 충북모금회와 공동모금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다양한 봉사팀과 함께 지역사회에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 청주가경노인복지관 '김장나누기' 성황

## 디딤돌 봉사팀 등 40여명 참가... 소외 어르신에 전달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정은경)은 12일 지역사회에 소외된 어르신에게 드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사팀 운영회, 들꽃, 가경동통장단, 디딤돌, 별별지기, 나눔팀 등 다양한 봉사팀과 가경노인복지관 은세계 봉사

자 등 총 40여명이 김장 속 재료를 다듬고 배추 속을 넣는 등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웃는 얼굴로 다들 함께 참여했다.

또 KB국민은행 지점에서는 지역사회 어려운 어르신을 위하여 10kg 김장 30박스를 후원해주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고, 14일에는 한국마사회에서 김장 20kg, 20박스를 후원하여 지역사회 돌봄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장은 드림선협 봉사자와 밀반찬 배달 봉사자들이 재가 어르신 가정마다 가가호호 방문하여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전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정은경 관장은 "금 번 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과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도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충북복지넷



(2019년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우수사례)

### ‘내가 찾은 행복’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프리마켓과 도서관 프로그램.

더 이상 가족들에게 나의 손길이 필요치 않게 되면서 심심함을 달래 줄 그 무언가가 필요해 내가 사는 아파트에 문이 닫혀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시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관리소장님을 찾아가고 동대표회장님을 찾아다니며 의논을 해 봐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어 절망적이었다.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다 우리 집에 필요 없는 소품들과 정성들여 키운 화초들을 분갈이해 프리마켓을 열었다. 적게나마 들어오는 수입금들을 모아 도서관 인테리어도 하나씩 바꾸게 되고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프로그램도 늘려갔다.

사회공헌활동은 내 자신이 사회에 보탬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여감이라 자주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많은 사회공헌을 위해 2019년은 특별히 더 열심히 활동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40개가 넘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년 내내 일상적인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는 중 여류방학과 더불어 30도가 넘는 더위를 피할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지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큰 보람이 되었다.

새로운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고 0세부터 96세 할머니까지 폭 넓

게 화합의 장이되어 바쁘고 행복하게 무더위를 날렸다.

눈에 띄는 재능을 가진 초등학생들의 각자의 방을 만들어 방학 동안 재능 기부로 주 1회 선생님을 하는 방을 운영하였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이웃 동네 주민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먼 미래에 아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주민들의 호응과 믿음은 답으로 얻었다. 얻은 호응과 믿음을 아이들에게 쭉쭉 자라나는 원동력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퍼부어 주고 있다.

내가 모르는 내 등쪽에 그려지는 나의 얼굴은 환하게 웃을 짓는 얼굴이 그려졌기를 바라며 오늘도 씩씩한 하루를 보낸다. ■최우성(성남읍)

### ‘푸드뱅크를 통한 사회 공헌’



푸드뱅크 수혜자 방문하여 협업체크

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가 시작된 지 벌써 12년째가 되어간다. 푸드뱅크는 기탁되는 물류가 많다보니 어려운 이웃에게 물류를 배분해야 하는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

푸드뱅크에 등록된 봉사자가 사회공헌 참여자로 등록해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여자 분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공헌과 푸드뱅크가 함께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4년째이다. 이 사업을 하며 ‘어르신들을 행복하게’라는 프로그램으로 월 1회 회로당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 행사는 바로 사회공헌제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 참여자 중 가장 허약한 최은수씨를 소개하고 싶다. 은수씨는 행사에서 어르신들의 혈압과 당을 체크해 주신다. 사회공헌에 참석하기 전 은수씨의 건강은 기관지 천식이 심해 장에 2등급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건강했으나 이후 심한 기관지 천식이 왔으며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기나긴 만성 질병으로 자리잡아 결국 숨쉬는 것조차 불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나로서

는(푸드뱅크 소장) 은수씨에게 사회공헌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고 간호사 경력과 그간 몸으로 체험한 건강상담을 재능기부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그는 그날로 협업 체크기와 당체크기를 사 집안에서의 삶에서 뛰어 나와 사회공헌 참여자로서 봉사하는 삶으로 인생 전환을 하게 되었다. 본인이 힘들었던 만큼 아픈 사람을 보면 자신의 고통처럼 함께 아파해주시기도 한다. 은수씨가 앞으로도 건강과 웃음을 선사해주는 삶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우수성(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

### ‘사회공헌활동으로 밝아진 나의 인생’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노래 재능기부

나는 척추질환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며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다가 2019년 3월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단체를 알게 되었다. 사진과 육을 받고 사회공헌활동자로 한강문화예술단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봉사를 다니게 되었다.

월 수회를 한강예술단 단원들과 같이 방송장비를 운반하시는 단장님과

함께 100여명 어르신들 앞에서 30여명의 단원들과 공연을 하고 저도 노래를 부르며 어르신들이 춤을 추시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신이 난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도움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새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갖고 더 나아가 봉사한 대가를 국가에서 정당하게 매달 받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됐다. 사실 나는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

고 가족도 없는 고아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늦게라도 혼자라는 외로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당당히 사회활동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과거 무의미한 삶,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낙심속에 고독한 삶을 살아왔던 나에게 내일이란 희망으로 밝은 인생이 되도록 제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려성(민원국)

### ‘공동생활시설 및 요양원 이미용서비스 제공활동’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이미용 활동

시청에서 실시하는 이미용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수료 후 2주간의 보수 교육도 열심히 이수하여 습득한 기술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교육 수료 후 까까드림이라는 봉사팀으로 공동생활가정 및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 및 장애인분들께 한

달에 8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청에서 진행되는 전문사회봉사에 참여하여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미용 봉사를 시작하며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인연이 되었던 많은 이용자 분들과 교감하고 까까드림이라는 봉사단체에서의 여러 활동으로 이전까지 해오던 일과는

또 다른 보람과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수성(까까드림)

### ‘작은도서관 봉사 활동에서 작은 꿈을 이룬다’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및 아동 독서지도

“멋있고 아름답게” 이것이 나의 황혼 인생 목표다.

첫 출발은 청주고인쇄발물관 관장을 맡고 공직에서 퇴직한 2007년부터다. 그즈음 나는 인생에대한 막연한 허허로움 그리고 너무 많은 자유가 오히려 불안으로 느껴졌고 그로인해 직장에서 해방 된 것이 기뻐해야만 될 일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다.

황혼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

해 목표를 정하고 가정노인복지관에 다니는 중 책임기와 봉사활동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일로 생각해 도서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봉사자로서 시립도서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여 사서업무와 도서관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은세계도서관은 복지관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7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사회공헌 참여자로 활동 중이다. 사서가 도서를 분

류하면 함께 분류번호표를 붙이고 서가에 비치하는 일이 봉사활동의 주된 일이었다고 도서관 회원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고 회원에게 책을 빌려주거나 수납 처리를 하는 활동을 하였다.

독서동아리도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요약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더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중에서도 독서지도사·노인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 노인이 겪는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상식도 갖추게 되었다. ■장려성(재택)

### ‘인생3막 시작!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다’



청소년대상으로 항공진로 직업, 미래항공우주산업 주제로 강의

“100세 장수시대”가 그리 멀지 않다고 한다. 은퇴 후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게 될 것이다. 나는 같은 고민에 지난해 말 공황에서의 35년간 근무 경력을 끝으로 정년퇴직과 동시에 서울 도시의 삶을 뒤로하며 친인척 누구 하나 없는 충북 음성군에 귀촌했다.

은퇴하면 삶의 3분의1 시간은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에 꼭 활용하겠다고 다짐해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방문하였다. 부부봉사단 소속으로 요양원, 앙로원 및 일손봉사 등 매일

양한 봉사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공항과 항공분야 전문 경력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항공소년단 충북연맹과 연을 맺게 되면서 또 다른 세상으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행운을 잡았다. 이를 계기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접하고 한국항공소년단 충북연맹에서 진행되는 항공캠프, 항공진로직업 체험 과정 등에서 “공항과 직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미래항공우주산업” 두 가지 강의주제를 가지고 항공진로체험관, 초중고 학교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찾아가 강의를 즐겁게 진행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전혀 경험이 없었던 강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를 향한 도전과 꿈을 키워 실현시킬 수 있는 일에 나의 재능으로 보탬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자존감과 행복함이 더욱 체적을 하였다. 강의를 듣는 청소년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현장에 내가 있다는 사실에 내 인생3막 시작은 성공적이라고 자신한다. ■장려성(음체소)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평받는 송백예술단’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문화예술 공연

다른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던 단원들이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의기투합하여 송백예술단을 결성하였다.

단원 대부분이 교직 또는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 많으며 가요, 가곡, 시낭송, 다양한 악기 연주 등으로 요양

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이 퇴소하면서 송백예술단 단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남겨주고 가셨다.

단원 모두가 다함께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고 큰 보람을 느꼈

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미있는 진행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힘을 얻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성(송백예술단)

복지광장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송기성  
충북지체장애인협회장

상품들이 진열되고 사람들에게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예요.” 라고 각인 시킨다.

이런 빼빼로 데이가 상업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언론과 인터넷 매체에서는 ‘농업인의 날’을 부각시켜 가래떡 데이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이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국가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과는 별개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제정한 날이다.

사단법인이 제정한 날이 과연 중요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지체장애인의 날을 제정했는지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01년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선포하면서 매년 11월 11일에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지체장애인의 날을 정한 의미는 아래와 같다.

첫째로, 11월 11일은 ‘1’이라는 숫자가 1년 중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날이다. ‘1’은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라서, 지체장애인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힘찬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로, ‘1’자의 형상은 직립을 뜻하고 있는 바,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로 제각각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똑바로 당당하게 세상을 활보하고픈 지체장애인들의 욕구를 표현하고, 곧은 정신을 지향하여 힘차게 일어서다는 의미이다.

셋째로, ‘1’은 첫째를 의미하는 바, 지체장애인 스스로를 제일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동시에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전체를 제일의 소중한 가치로 여김으로써 진정한 복지사회를 염원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

넷째로, 1986년 11월 11일은 국내 최대의 장애인단체이자 대표적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창립을 위한 첫 발기인 모임이 개최된 날이다.

보건복지부 자료 시·도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충북의 장애인 수는 97,086만 명으로 그중 46,523만여 명이 지체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장애인 인원의 47.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처

살피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비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을 낮설어하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면 비장애인들의 불필요한 관심과 지나친 호의가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11월 11일을 단순히 빼빼로 데이로 보거나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나와는 조금 다른 이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다.

다양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배려는 이런 다양성의 핵심가치다.

배려는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기에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기를 바라본다.

더 나아가 지체장애인들을 이해할 수도,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들도 어렵겠지만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길 기대해 본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로 인식한다. 10월 말부터 거리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

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입주자들 대부분이 중장애로 약물 복용을 하고 있어 폭력을 당한 후에도 근거리에서 지원을 해야 하니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부담이다. 더구나 폭력적인 입주자들은 그들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가족체계가 대부분 약하다. 유료시설은 다를 수 있으나 장애인 유료시설은 무연고 입주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부모님이 계셔도 노쇠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분가에서 단절을 바라는 경우 등 격리하기가 쉽지 않다.

폭력을 당한 종사자를 빨리 격리 조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관의 대응방법이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24시간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주시설에서는 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져 다른 종사자가 대신해야 하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아니면 현장에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클라이언트 관련 폭력 시 대처하는 기관의 대응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66.9%로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의 인식에 사로잡혀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이라면 우리는 전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이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자들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 받아야 할지 이제는 사회복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민심서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는 말이 있다.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해서 화가 난다’라는 말인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이 입주자나 이용자의 인권에 밀려 계속해서 참아내기를 바라다면 종사자들은 ‘불공평해서 화가 난다’라는 불만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사회복지현장에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

그러나 거주시설에서의 클라이언트 폭력은 대처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시설에서는 동료 이용자나 종사자들을 향해 도전적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될 때 서비스를 중단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정의 개념이다 보니 다른 곳으로 전출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폭력이 있어도 식사나 양

복지포럼

가난해서가 아니라 불공평해서 화가 난다



이란희  
라우렌시오빌 원장

가을의 문턱에서,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의 장애인 분들을 초대해 조촐한 국악 음악회가 있었다. 국악 공연에 시각화된 이미지를 더해 함께 한 분들은 낯선 해금과 대금 연주에도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발달장애인들의 흥과 끼를 돋우기 위해 마치 박수부대가 된 듯, 먼저 소리쳐주고 환호해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포기하며 막춤까지 선보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렇게 현장은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우리를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의 삶에 행복을 더해주려 노력하지만 종사자들을 향한 클라이언트들의 폭력은 이제 너무 다양하여 안타깝다.

얼마 전 ‘청주시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회’에서 클라이언트 관련 폭력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61명(16.7%)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괴롭힘 43명(11.8%) 신체적 폭력 32명(8.7%), 성적 괴롭힘 9명(2.5%)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현 직장의 인권보호 대책을 항목별로 조사한바,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지침서나 매뉴얼이 없다는 응답이 224명(62.9%),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억제방법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254명(72.8%) 등으로 결과가 나와 사회복지현장의 기관이나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

그러나 거주시설에서의 클라이언트 폭력은 대처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시설에서는 동료 이용자나 종사자들을 향해 도전적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될 때 서비스를 중단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정의 개념이다 보니 다른 곳으로 전출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폭력이 있어도 식사나 양

을 마친다.

주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입주자라 한다.

현장의 목소리



박유나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봉사활동,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는 주택개선봉사활동,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토크콘서트, 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프리마켓, 소외아동을 위한 물레 산타, 유기동물 입양프로젝트 등 실제로 지역 내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몽글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다. 한 번은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에 청소년들과 함께 장판을 깔아드리고, 청소년을 해드리기 위해 찾은 적이 있다. 한참은 손이 닿지 않아 먼지 쌓인 물건들과 언제부터 써고 있었는지 모를 음식물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웬지 모르게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주인이 찾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처럼, 할아버지의 삶도 그렇진 않을까. 찾아오는 이라고는 도시락 배달을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봉사활동,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는 주택개선봉사활동,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토크콘서트, 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프리마켓, 소외아동을 위한 물레 산타, 유기동물 입양프로젝트 등 실제로 지역 내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몽글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다. 한 번은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에 청소년들과 함께 장판을 깔아드리고, 청소년을 해드리기 위해 찾은 적이 있다. 한참은 손이 닿지 않아 먼지 쌓인 물건들과 언제부터 써고 있었는지 모를 음식물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웬지 모르게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주인이 찾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처럼, 할아버지의 삶도 그렇진 않을까. 찾아오는 이라고는 도시락 배달을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봉사활동,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는 주택개선봉사활동,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토크콘서트, 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프리마켓, 소외아동을 위한 물레 산타, 유기동물 입양프로젝트 등 실제로 지역 내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몽글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다. 한 번은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에 청소년들과 함께 장판을 깔아드리고, 청소년을 해드리기 위해 찾은 적이 있다. 한참은 손이 닿지 않아 먼지 쌓인 물건들과 언제부터 써고 있었는지 모를 음식물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웬지 모르게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주인이 찾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처럼, 할아버지의 삶도 그렇진 않을까. 찾아오는 이라고는 도시락 배달을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봉사활동,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는 주택개선봉사활동,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토크콘서트, 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프리마켓, 소외아동을 위한 물레 산타, 유기동물 입양프로젝트 등 실제로 지역 내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몽글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다. 한 번은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에 청소년들과 함께 장판을 깔아드리고, 청소년을 해드리기 위해 찾은 적이 있다. 한참은 손이 닿지 않아 먼지 쌓인 물건들과 언제부터 써고 있었는지 모를 음식물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웬지 모르게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주인이 찾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처럼, 할아버지의 삶도 그렇진 않을까. 찾아오는 이라고는 도시락 배달을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봉사활동,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는 주택개선봉사활동,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토크콘서트, 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프리마켓, 소외아동을 위한 물레 산타, 유기동물 입양프로젝트 등 실제로 지역 내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몽글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다. 한 번은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에 청소년들과 함께 장판을 깔아드리고, 청소년을 해드리기 위해 찾은 적이 있다. 한참은 손이 닿지 않아 먼지 쌓인 물건들과 언제부터 써고 있었는지 모를 음식물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웬지 모르게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주인이 찾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처럼, 할아버지의 삶도 그렇진 않을까. 찾아오는 이라고는 도시락 배달을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나누며 성장하는 청소년들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봉사활동,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는 주택개선봉사활동,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토크콘서트, 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프리마켓, 소외아동을 위한 물레 산타, 유기동물 입양프로젝트 등 실제로 지역 내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몽글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다. 한 번은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에 청소년들과 함께 장판을 깔아드리고, 청소년을 해드리기 위해 찾은 적이 있다. 한참은 손이 닿지 않아 먼지 쌓인 물건들과 언제부터 써고 있었는지 모를 음식물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웬지 모르게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주인이 찾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처럼, 할아버지의 삶도 그렇진 않을까. 찾아오는 이라고는 도시락 배달을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봉사활동,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는 주택개선봉사활동,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토크콘서트, 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프리마켓, 소외아동을 위한 물레 산타, 유기동물 입양프로젝트 등 실제로 지역 내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몽글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다. 한 번은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에 청소년들과 함께 장판을 깔아드리고, 청소년을 해드리기 위해 찾은 적이 있다. 한참은 손이 닿지 않아 먼지 쌓인 물건들과 언제부터 써고 있었는지 모를 음식물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웬지 모르게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주인이 찾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처럼, 할아버지의 삶도 그렇진 않을까. 찾아오는 이라고는 도시락 배달을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봉사활동,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는 주택개선봉사활동,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토크콘서트, 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프리마켓, 소외아동을 위한 물레 산타, 유기동물 입양프로젝트 등 실제로 지역 내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몽글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다. 한 번은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에 청소년들과 함께 장판을 깔아드리고, 청소년을 해드리기 위해 찾은 적이 있다. 한참은 손이 닿지 않아 먼지 쌓인 물건들과 언제부터 써고 있었는지 모를 음식물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웬지 모르게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주인이 찾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처럼, 할아버지의 삶도 그렇진 않을까. 찾아오는 이라고는 도시락 배달을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봉사활동,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는 주택개선봉사활동,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토크콘서트, 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프리마켓, 소외아동을 위한 물레 산타, 유기동물 입양프로젝트 등 실제로 지역 내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몽글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다. 한 번은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에 청소년들과 함께 장판을 깔아드리고, 청소년을 해드리기 위해 찾은 적이 있다. 한참은 손이 닿지 않아 먼지 쌓인 물건들과 언제부터 써고 있었는지 모를 음식물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웬지 모르게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주인이 찾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처럼, 할아버지의 삶도 그렇진 않을까. 찾아오는 이라고는 도시락 배달을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봉사활동,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는 주택개선봉사활동,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토크콘서트, 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프리마켓, 소외아동을 위한 물레 산타, 유기동물 입양프로젝트 등 실제로 지역 내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몽글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다. 한 번은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에 청소년들과 함께 장판을 깔아드리고, 청소년을 해드리기 위해 찾은 적이 있다. 한참은 손이 닿지 않아 먼지 쌓인 물건들과 언제부터 써고 있었는지 모를 음식물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웬지 모르게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주인이 찾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처럼, 할아버지의 삶도 그렇진 않을까. 찾아오는 이라고는 도시락 배달을

어두운 골목길, 혼자 계신 어르신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대화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재능으로 마음이 가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 상담 센터 사업 안내

법률상담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라혜영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화 : 043)238-0843 / 이메일 : hyra21@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상담터



법무부



충청북도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대>

Q. 제 아들이 얼마 전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었고, 지금까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위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우선 아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책임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책임능력이란 법률상 책임을 번식할 능력으로(민법 제753조) 책임능력 유무는 연령이나 학식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대체로 만12세까지는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만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아들에게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아들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에 대하여는 친권자인 부모의 '개별적·구체적 감독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례의 구체적 태도를 살펴보면 부모와 같이 사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고 무사고경력의 경우에는 부모의 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아들에게는 청구할 수 있으나 아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동정

노영수 10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취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관계자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선임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청주산단 내 중견기업인인 노영수 선임 회장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부이사장,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청주지역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노영수 회장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도내 개인·기업·단체에서 정성으로 모아준 귀중한 성금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나누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

나우리회 및 스마일봉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나우리회(회장 심재훈) 및 스마일봉사단(회장 최용순)은 지난 10월 31일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서 장애인가구(4가구, 각 400장)를 대상으로 연탄나눔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



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한국의료지원재단]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로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를 포함(산재승인 여부 무관)
- 지원기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4인가구 기준 월소득 4,614,000원 이하)
- 지원내용: 치료비(간병비 포함)지원,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입원,통원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 문의사항: 한국의료지원재단 : 02-6212-9753, 02-6212-9755
- 참고: http://support.komaf12.org

[아이들과 미래재단]2019년도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러브아이'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고액의 의료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
- 접수기간: 2019년 2월 ~ 11월(상시 접수)
-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48명(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당해연도 중위소득 80%이내 저소득 가정
-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신청서류 메일 제출
\*개인신청 불가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병원, 학교 등
- 신청서류: 공문1부, 사업신청서1부, 지원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의료적 상황 확인서(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아동 기준)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구 소득유형에 따른 증빙서류(해당자)
\*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고: http://www.kidsfuture.or.kr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저소득층으로 환아가 있는 사회적·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소득수준의 경우 차상위계층 포함)
- 청소년 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본 기관 홈페이지 신청접수(홈페이지 상단 '희망나눔' - '사업제보 및 후원신청'을 통한 제출)
- 제출서류: https://www.bokji.net 홈페이지 참조
- 심사 및 선정절차: 추천 및 신청(접수 및 심의(후원 및 사례관리(돌봄)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 / ☎ 02-3789-2555 / 이메일: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bokji.net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9년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사업대상: 전국 사회복지관
- 지원대상: 화상, 고도비만, 기형 등 외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사회생활을 기피하

- 게 된 대상자
- 지원내용: 외형적 신체질환 및 정신건강 치료, 사회복귀활동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안내문 참조)
- 신청기간: 수시 진행(매월 대상자 모집 및 심사 진행 예정)
- 기타
- 붙임문서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swc.or.kr) 복지정보-사회복지소식에서 다운로드
- 문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담당(전화: 070-7017-6623)

[신한금융그룹]위기가정 재가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후원처: 신한금융그룹
- 사업지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21년 4월(상시신청)
- 신청대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가각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 신청기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항목: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위기가정 재가지원 사무국(월~금 10:00~17:00, 02-6424-1551)
- 참고: www.shinhanhope.com

태강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0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안내

비장애정제-자매 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교육비
- 신청 대상: 장애어린이를 정제-자매로 둔 만 18세 미만 중·고생 비장애정제-자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 인원: 40명(학업 교육비) / 20명(예체능 교육비)
- 지원 기간: 2020년 2월~11월(10개월)
- 신청 기간: 2019년 11월 13일(수)~2019년 12월 27일(금)
- 지원 문의: 02)6395-7010

장애인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교육비
- 신청 대상: 부모가 장애인인 만 13세 미만 어린이(부모 중 한 명 이상 등록장애인의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 인원: 35명
- 지원 기간: 2020년 2월~11월(10개월)
- 신청 기간: 2019년 11월 13일(수)~2019년 12월 27일(금)
- 지원 문의: 02)6395-7001

멘토링 및 학습지원

- 지원 항목: 일주학술문화재단 대학생 장학금 멘토링 및 학습비 지원
- 신청 대상: 장애어린이를 정제-자매로 둔 만 18세 미만 중·고생 비장애정제-자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 지원 인원: 10명
- 지원 기간: 2020년 3월~2020년 12월(10개월)
- 신청 기간: 2020년 1월 6일(월)~2020년 2월 14일(금)
- 지원 문의: 02)6395-7001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담당자가 이메일 신청(부모자 개별신청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 사례관리 가능 기관은?
신청서 사용처(아이들)은 단체, 의료기관, 자립지원기관 등
\* 자세한 내용과 사식은 후원재단 홈페이지(www.purmag.org) 참조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양보사업 지원(기타)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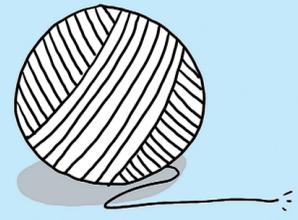


복/지/만/평

실명치

이창신 www.bokmani.com

실을 사용하려면 먼저 잘 감아놔야 합니다.



엉켜 있는 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풀려면 먼저 잘 감아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봉사자 모집

- ▶ 캠페인 행사 보조
관리센터: 청주청소년쉼터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31-2676
▶ 구연동화 및 말벗상담
관리센터: 충북복지연합요양원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35-6988
▶ 이미지 봉사
관리센터: VIP요양원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53-9988
▶ 영어, 중국어 통역봉사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16-3060
▶ 경로식당 봉사
관리센터: 충주시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724-3345
▶ 초등학교 학습지도
관리센터: 미라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96-1003
▶ 발달장애인 적응지원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95-2505
▶ 업무보조
관리센터: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91-0199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67-4590
▶ '세발자전거' 멘토 모집
관리센터: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50-1226
\*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 자료출처: www.vms.or.kr